

“목포대 의대 설립·무안공항 활성화 지원을”

목포상의, 김원이 국회의원 초청...기업인 소통간담회 개최 전남 서남권 현안 4건 건의...김 의원 “정부 차원 대처 필요”

목포상공회의소가 지역구 김원이 국회의원을 초청해 목포대 의대 설립,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역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목포상공회의소는 8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을 초청,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를 갖고 전남 서

남권의 주요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34년 서부권 주민의 숙원인 의료복지서비스 수혜 등을 위해 정책 차원에서 당면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광주공항의 조속한 이전 및 무안공항 활성화 ▲목포시·무안군·반도 행정통합(목포시·무안군·신안군) ▲국립목포해양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통합 등이다. 목포상의는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의 인구 소멸을 막고 동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광주공항 이전 및 무안공항 활

성화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이 명실공히 광주 전남의 관문 국제공항인 만큼 광주공항이 조속히 이전돼 무안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해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지역 소멸과 지방대학 생존 전략으로 목포해양대와 목포대 통합을 통해 해양산업과 친환경 선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두 대학의 통합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목포시·무안군·신안군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동부권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 중심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 차원의 지역 균형 및 인구 소멸 예방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4개 현안은 그동안 지역사회가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오

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지역의 숙제”라며 “목포상의의 2대 의결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목포상의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광주공항 및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닌 국방부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한정판 캠핑·피크닉 용품 출시 이마트가 5월 캠핑 시즌을 맞아 인기 일러스트레이터 '노이신' 작가와 협업한 한정판 캠핑·피크닉 용품 18종을 선보인다. 사진은 '노이신' 작가 콜라보 캠핑용품 소개 모습. (이마트 제공)

병원비·약값 줄줄이 상승...한방·치과진료비도 '경풍'

1분기 입원비 6년여만에 최대 상승...소화제 11.4% ↑, 감기약 7.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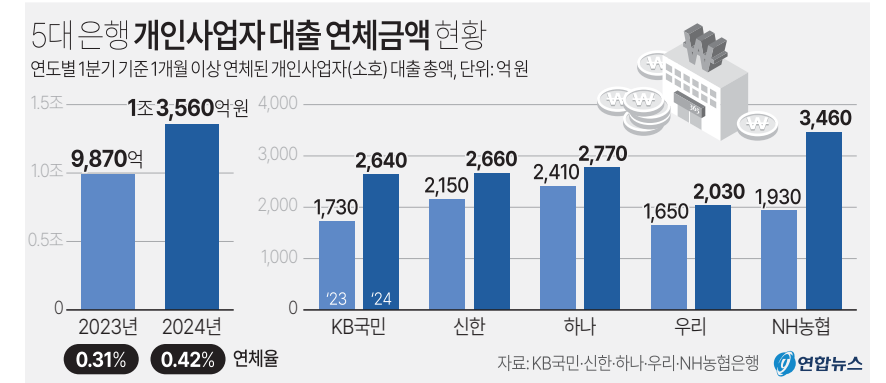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약값이 줄줄이 상승세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입원진료비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3~4분기 1.8%를 기록한 뒤 2년간 1.5%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7%)에 이어 올해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8% 올랐던 외래 진료비도 올해 1분기 2.0% 오르며 다시 상승세다. 한방·치과진료비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치과진료비는 1분기 3.2% 올라 2009년 3분기(3.4%)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한방진료비도 3.6% 올랐다. 2012년 4분기(3.7%) 이후 11년여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새해 들어 진료비가 일제히 오른 것은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

단 등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1.98%다. 약값의 분인부담액도 수가 인상 폭만큼 오르면서 관련 물가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소화제는 올해 1분기 11.4%, 감기약은 7.1% 올랐다. 피부질환제(6.8%), 비타민제(6.9%), 진통제(5.8%), 한방약(7.5%) 등도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3.0%)을 웃돌았다. 1분기 전체 의약품 물가는 2.0% 상승했다. 지난해 2.1% 오르며 2011년(2.4%)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4개 분기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

고금리 여파 1년새 37% 늘어 1분기 말 평균 연체율 0.42%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00억원에서 322조3천60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

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0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030억원으로 22.7% 늘고, 연체율이 0.32%에서 0.40%로 높아졌으며, NH농협은행 역시 연체가 1천930억원에서

3천460억원으로 79.3% 증가하고, 연체율이 0.36%에서 0.63%로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개인 병원 등 비교적 액수가 큰 여신들의 연체가 빠르게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착오송금 1위는 “계좌번호 잘못 입력”

금융회사 206곳 예방 기능 강화

모바일로 송금하던 중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206곳을 대상으로 예방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뱅킹·간편송금 앱을 개선

한다고 밝혔다. 예보가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천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 그중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 유형을 보면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경우도 잦았다.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모바일 앱을 보완·개선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h3>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 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 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 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 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 <p>010-6670-9800</p>	<h3>상가 매매 (상무지구)</h3>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형가능 (룸, 노래홀, 홀덱)</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062-382-5500</p>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중급반 (실전부터 ~)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투자반 (투자기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	---	---